

2024. 2. 14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

동물보호과장

이미숙

02-2133-7645

동물관리팀장

이운오

02-2133-7655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6쪽

### 서울시, 봄철 야외활동 시즌 전 '들개' 집중 포획... 시민 안전 지키다

- 2.15.~3.31. 관악산·북한산 등 도심 주요산지와 산책로 등 집중 출몰지역 중심
- 사람과 동물 모두에 안전한 포획틀과 마취포획 병행, 수의사 등 마취포획전문가 투입
- 포획된 개는 유기동물로 준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 새 입양처 찾아
- 시, “포획된 개 발견시 신속한 보호 조치 위해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 줄 것 당부”

- 서울시는 설연휴 직후인 15일(목)부터 다음달 31일(일)까지 최근 관악산·북한산 등 도심 주요 산지와 주변 산책로 및 주택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야생화된 유기견, 일명 ‘들개’ 집중포획에 나선다. 4월, 봄 행락철과 산행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기 전 최대한 포획을 진행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.
- 현재 관악산(청룡산·삼성산 포함), 북한산(도봉산·수락산 포함) 등지에서 서식하는 들개는 약 200마리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들개들은 무리 지어 이동하며,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주택가 등에 나타나 시민의 위협대상이 되고 있다.

-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시 포획활동을 펼쳐 왔으나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서식 및 활동범위가 넓고 성견의 경우 포획틀에 대한 학습효과로 포획 성공률이 낮아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확산을 막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.
  - 이외에도 일부 시민들이 포획틀에 갇힌 들개를 풀어주거나,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사례 등도 포획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.
- 이번 포획활동은 들개포획용 표시와 연락처가 기재된 포획틀 120여 개와 마취포획을 병행한다. 특히 성견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취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.
  -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의사와 마취포획전문가로 구성된 포획팀과 2인 1조 수색팀을 운영한다.
- 시는 시민안전과 포획효과 제고를 위해 포획틀에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포획된 들개를 발견한다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신속하게 보호조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.
  - 포획된 개를 풀어주면 재포획이 어려우며 먹이 등을 제공하면 포획 어려움은 물론 개체수 증가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니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다.
- 포획된 개는 유기동물로 준해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유기동물 공고가 종료된 개는 동물보호 단체 등과 협력해 사회화 훈련 후 입양자를 찾게 된다.

- 아울러 보통 들개는 야생성으로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적지만 위협을 느끼면 공격할 수 있으니 먹이를 주거나 구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시는 설명했다. 또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질러 들개가 위협처럼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
- 들개는 사람을 공격하기 전 경고를 하는데,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면 들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하며 산행 시 만난 어린 강아지는 어미 개가 곁에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가가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.
-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집중포획 기간 운영은 시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포획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포획효과가 높은 계절에는 집중포획을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

## 붙임 1. 참고자료

### 2.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관련 Q&A

○ 서울시내 들개 서식 현황 : 200마리 이상 추정

○ 서울시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관련 민원현황 및 포획현황

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
민원(건)	197	286	749	561	471
포획(마리)	121	136	163	208	202

○ '24년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집중 포획 증점지역 현황

- 관악산(청룡산·삼성산 포함) 주변지역: 2개구(관악·금천구)
- 북한산·도봉산·수락산·백련산 주변지역: 7개구(종로·성북·강북·도봉·노원·은평·서대문구)

**|Q1| 서울시가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집중포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?**

- ◆ 현재 서울에는 관악산(청룡산·삼성산 포함), 북한산(도봉산·수락산 포함) 등 산지에 서식하는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이 성견 기준 약 200여마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.
  - ※ 야생화된 개(들개) 개체 수는 이동성으로 중복 관찰 등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음
- ◆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는 무리지어 이동하며,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주택가 등에 나타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음.
- ◆ 최근 관악산 인근 서울대학교와 청룡산, 삼성산 주변 산책로와 주택지역에 출몰하여 학생과 등산객 등 시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어, 봄철 산행 및 시민 활동이 활발해지기 전에 집중포획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**|Q2| 그동안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포획은 없었는지?**

- ◆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들개 포획활동을 하고 있었으나, 녹음이 우거지기 전 시기인 2~3월이 포획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산행이 활발해지는 시기 이전에 '집중 포획 기간'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활동 보장과 개체수도 조절하기 위함임
- ◆ 앞으로도 포획효과가 높은 계절에는 지속적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할 예정임

### |Q3|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포획 방법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?

- ◆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방법인 포획틀 포획과 마취포획을 병행 할 계획이며, 마취포획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동반하여 포획 활동을 할 예정임.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포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
- ◆ 포획된 동물은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 20일간 보호하며, 공고 후 10일이 경과한 동물은 입양자를 입양자를 찾게 됨. 특히 어린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화교육을 거쳐 새로운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. 야생성이 강한 성견의 경우, 입양이 안되면 인도적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시민들이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함.

### |Q4| 들개를 마주친다면?

- ◆ 야생화 된 유기견(들개)은 유기견과 달리 야생성이 있어 사람을 경계하는 특성으로 먼저 접근하는 사례는 적으나 위협을 느끼면 공격할 수 있으니, 먹이를 주거나 구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음.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질러 들개가 위협처럼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게 행동해야 함.
- ◆ 들개는 사람을 공격하기 전 경고를 하는데,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면 들개와 눈을 맞추지 말아야 함. 산행 시 만난 어린 강아지가 귀여워 보여도, 부모 들개가 곁에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함